

당권 누구에게... 한나라 새 좌표 분수령

민주 개혁법안 진통

의총 '오픈 프라이머리' '슈퍼스타 K' 방식 놓고 격론

오늘 전당대회 노선·정책기조 변화 예고

당내 갈등 봉합·黨-靑 관계 등 과제 산적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는 여당의 새 좌표를 설정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여당 내 고조된 위기감 속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전당 결과는 한나라당에 커다란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당에서 새로 선출될 지도부는 당장 지난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위기감이 휩싸인 당을 추스려야 하며, 멀게는 내년 총선 승리를 향해 전열을 재정비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의 내부 역학관계를 보면, 차기 당권이 누구에게 귀착되느냐에 따라 당 노선과 정책기조는 물론, 당·청 관계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로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교체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에서 노선과 정책기조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주류를 자임하며 '당당한 한나라'를 내세운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계파 해소를 비롯해 당의 면모 일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어젠다 선점과 정치감각이 뛰어난 홍 후보는 당·청 간 협력에 유리하는 '등거리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주류로 부상한 황우여 원내대표와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총선 불출마라는 배수진을 치고 당권에

도전한 원희룡 후보가 당 대표에 오를 경우 '40대 기수론'이 현실화하면서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에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조 소장파에서 주류로 발돋움한 원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화합의 리더십을 내걸고 있는 만큼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면서 당·청 관계도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이계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당 노선과 정국운영을 놓고 신주류와의 갈등 관계를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가 장점인 나경원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되면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투표로 선출된 두 번째 여성 당대표로서 향후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다만, '여성 대권주자-여성 당대표' 구도에 대한 당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야 하는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도부의 교체는 당의 정책 기류에도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7명의 후보는 그동안 반값 등록금, 추가감세 철회, 무상급식 등의 사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성향으로 팽팽하게 대립했다.

당 관계자는 3일 "전대 결과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원들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는 내일(4일) 전대 결과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할 7·4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3일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251개 투표소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북구지역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중 개혁특위의 내년 총선 및 대선 공천 개혁 방안에 대해 당내에서 강력한 이견이 쏟아지면서 최종 합의점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일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개혁특위가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을 전당원 투표제 형식에, 총선 및 대선 후보 선출은 오픈 프라이머리(100% 국민 경선) 방식에 주안점을 둔 초안을 마련한 것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조지력을 앞세우고 있는 정세균 최고위원 측에서는 총선 공천에 당비를 낸 당원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규성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와 전당원투표제는 선거인단을 많이 동원하는 사람이 당선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이미경 의원은 "총선 공천은 동원경선, 금권선거 요소가 있고 역 투표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주선 최고위원도 "총선 공천에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제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손학규 대표 측과 정동영 최고위원 측은 일반 국민이 대거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100% 국민경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시대의 흐름으로서 무조건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정풍운동의 일환으로 항상 선도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선 공천에 배심원제인 슈퍼스타 K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성 배려 차원에서 중앙당 여성 위계 제안한 지역구 후보 30% 할당, 경선시 20% 가점 부여 등을 놓고도 현실성과 형평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당내 이견에도 개혁특위는 오는 4일 최종안을 확정짓 뒤 최고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도청의혹 연루 KBS에 포문

손 대표, 진실 규명 요구...한선교 의원 고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당대표실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 KBS에 유감을 표명하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도청 의혹 공방은 민주당과 KBS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급변할 전망이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KBS는 민주당 대표실 도청과 관련해 상의있게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협박 발언과 적절하지 못한 거친 취재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조매수 최고위원도 "KBS 기자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권을 협박하기도 하고 입법부를 도청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조만간 KBS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사건의 전모가 어느정도 가늠이 잡혀가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3일 도청 녹취록을 국회 문방위에서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 대한 경찰의 현장 점검에 반대하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항의 방탄키로 했다.

손 대표가 지난달 28일 간 나오도 일본 총리의 면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 설득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 핵, 미사일 개발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제시한 것을 두고 정 최고위원이 정세균 논란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원칙있는 포용정책"이라는 말은 햇볕정책의 취지에 수정을 가하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원칙있는 포용정책'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워딩으로, 마치 햇볕정책 노선이 원칙적인 포용정책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표정으로 듣고 있던 손 대표는 "원칙있는 포용정책"은 '종북(從北)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북의 세습이나 핵개발을 지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종북진보'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은 분명히 다르다"고 반격했다.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선두권 박빙

사상 첫 40대 대표 최대 관심...비주류 대표·여성대표 탄생도 주목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3일 전국에서 지역별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됐지만 관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남표·홍준표·권영세·박진·원희룡·나경원·유승민(이하 선수·가나다 순) 등 7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친 이번 전당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펼쳐진다는 측면에서 향후 여당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 = 원, 홍 후보가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나 후보는 대중적 인지도를 앞세워 이변을 노리고 있다. 홍 후보 측은 1위를 자신하고 있다. 친

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쇠신파 등 각 그룹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고, 일반국민의 지지도 역시 선두권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전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원 후보의 추격으로 양강 구도가 됐다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 후보 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 선거인단 투표에서 다소 뒤지더라도 큰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박빙 관세 때문에 전대 당일 치러지는 8881명의 대의원 현장투표로 당락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관전포인트 = 우선 40대 대표가 나오는

나자 최대의 관심거리다. 전대 후보 중 40대는 남경필·원희룡·나경원 후보 3명이다. 이들 중 한 명이 당권을 거머쥐면 한나라당 사상 처음으로 40대 대표가 탄생한다. 그동안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받던 시골 한나라당이 이들을 향해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또 비주류 출신 당 대표가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4선의 홍 후보는 현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지만 어느 계파에도 '확실하게' 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주류로 평가된다.

여성 대표의 탄생 여부도 주목된다. 직전 최고위원을 지낸 나 후보가 당 대표에 오르면 박근혜, 김영선 전 대표에 이어 여성으로는 세 번째로 당권을 쥐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 선거인 명부 '부실' '유령당원' 상당수 포함돼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 21만여명의 선거인단 명부를 둘러싸고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전당에서 선거인단은 전대 대의원(8881명), 청년선거인단(9443명), 당원(책임당원 10만여명+일반당원 9만여명) 등으로 모두 21만 1776명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0일 선거인 명부를 배포한 데 이어 최근 탈당한 당원 628명을 빼고 최종 선거인단을 확정했다.

문제는 당원위원회별로 중앙당에 올려보낸 선거인단에서 '유령 당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3일 "일부 당협에서 상당수 책임당원과 일반당원들이 이사를 가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정동영 대북정책 충돌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지난 1일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손 대표가 지난달 28일 간 나오도 일본 총리의 면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 설득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 핵, 미사일 개발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제시한 것을 두고 정 최고위원이 정세균 논란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원칙있는 포용정책"이라는 말은 햇볕정책의 취지에 수정을 가하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원칙있는 포용정책'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워딩으로, 마치 햇볕정책 노선이 원칙적인 포용정책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표정으로 듣고 있던 손 대표는 "원칙있는 포용정책"은 '종북(從北)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북의 세습이나 핵개발을 지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종북진보'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은 분명히 다르다"고 반격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TEL)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내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매매

- ▶신월IC 교통광장 집 코너
-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 (5동)
- ▶단지내 도로개설될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대 지: 250평(30x8코너)
-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높 이: 8.9, 10.9m
- ▶호이스트: 유, 유, 유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10980㎡, 임야: 13937㎡
- 케오마일 23형형 3개동, 케오마일10형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련원형지,수련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있음,계곡있음
- 매매가: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실투자금: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울산면 월산리 •대지: 1038㎡,건물1096㎡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촌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실투자금: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충동 한국아파트아울후문부근 코너

- 대 지: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목 적합
- 매매가: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촌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농지

- 대 지: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촌초교부근

- 대 지: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담: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고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8480㎡ 공장부지: 3192㎡의 잡종지 담양목과방면2차선 도로옆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010-6522-7731 FAX: 512-4589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북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둔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노프리오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성관계 전 약2-3시간전에 1정을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2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섭취 하시면 발기가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목시탁매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수수료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